

투어 번호
LKY9EN7J87

문화 & 해안 (12일)

12일 · 1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이 체험 소개

이 12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고전 노선을 따라 문화삼각지대의 고대 도시들, 캔디와 엘라 주변의 산악 지역, 건조한 남부 평원의 국립공원, 갈레와 콜롬보 주변의 해안을 거쳐 이동합니다. 개인 차량과 귀사의 전담 운전 가이드를 통해 여행하므로 고정된 단체 일정에 의존하지 않고 속도와 경유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시기리야에서 3박을 기반으로 폴로나루와와 아누라다푸라로의 당일 여행에 사용되며, 그 후 산악 지역의 캔디, 핫톤, 엘라로 계속됩니다. 그곳에서 야라로 내려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2박을 머물고, 해안을 따라 갈레에서 2박, 출발 전 콜롬보에서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호텔 숙박, 입장료, 비자 및 개인 경비는 투어 요금과 별도로 준비되며, 운전 가이드의 숙박은 전체 기간 포함됩니다. 최소 연령은 11세입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시기리야

공항에 도착하여 이후 3박 동안 머물 거점인 시기리야로 이동합니다.

Day 2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시기리야

시기리야에서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까지 다녀오는 당일 여행입니다.

Day 3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시기리야

시기리야에서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까지 다녀오는 당일 여행입니다.

Day 4 시기리야 → 캔디

시기리야에서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도였던 캔디로 이동합니다.

Day 5 캔디 → 하탄

캔디에서 차밭으로 뒤덮인 하탄 주변 언덕 지대로 이동합니다.

Day 6 하탄 → 엘라

하탄에서 시원한 산간 계곡이 펼쳐진 엘라로 이동합니다.

Day 7 엘라 → 얄라

엘라에서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얄라로 이동합니다.

Day 8 얄라

얄라에 머물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하루입니다.

Day 9 얄라 → 갈레

얄라에서 남부 해안에 위치한 갈레로 이동합니다.

Day 10 갈레

갈레에서 보내는 하루로, 황금빛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거리를 거닐어 봅니다.

Day 11 갈레 → 콜롬보

갈레에서 콜롬보로 이동하여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Day 12 콜롬보 → 공항

번화한 시장과 해안가 산책로를 즐기며 콜롬보에서 시간을 보낸 뒤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